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 비교
- 양대 미술 사조를 포괄하는 용어정립의 필요성 -
Comparison of Abstract Expressionism and Art Informel
- The Necessity of A Term Banding The Two Movements -

주저자

구본영 Koo, Bonyoung

평택대학교 패션디자인 및 브랜딩학과 | Professor of Pyeongtaek University

koo@ptu.ac.kr

투고일	2014.09.03	심사일	2014.10.10.	게재확정일	2014.10.18
-----	------------	-----	-------------	-------	------------

목 차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1.3.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추상표현주의
2.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탄생배경
 - 2.1. 전후 유럽과 북미 예술가들의 동향
 - 2.2. 추상표현주의의 탄생
 - 2.3. 앵포르멜의 탄생
3.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이념
 - 3.1. 추상표현주의의 이념
 - 3.2. 앵포르멜의 이념
4.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작품 경향
 - 4.1. 추상표현주의 작품경향
 - 4.2. 앵포르멜 작품경향
5. 종합토론
6. 결론

Keyword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 제3국 작품의 분류
Abstract Expressionism, Art Informel, terminology for
the third country works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bstract Expressionism and Art Informel is confused. Some references say the two movements are same but some others say not.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backgrounds of origins, ideologies, and tendencies of works between the two movements. Comparing two art movements, they are almost same. Namely, both movements have only a few differences : the region and the process of origins. Abstract Expressionism was influenced by Surrealism and Cubism and started by New York artists. And then Art Informel started by European artists and tried to break traditional ideologies. These differences could be the points to classify two art movements. However, this classification encounters a problem to classify works sharing all features the two movements have but created in the third countries such as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x an intersectional term of the two movements.

논문요약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은 동일한 사조로 언급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사조로 취급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양대 사조에 대한 서로 상충되는 정의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사조의 탄생배경과 추구해온 사상 및 작품 성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은 탄생배경과 추구해온 사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작품 성향에서 역시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다만 추상표현주의가 초현실주의나 구비즘 등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탄생한 반면, 앵포르멜은 전통적 법칙을 탈피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한 유럽의 작가들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러한 탄생과정과 지역의 차이는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구분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과 같이 양대 사조의 사상과 작품성향은 공유하지만 탄생지역과 과정을 공유하지 않는 제3국의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정의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의 제정이 요구된다.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서구의 미술계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북미에서는 잭슨폴록(Jackson Pollock)을 필두로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가 등장하면서 뉴욕화단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였고, 유럽에서는 아르 앙포르멜(Art Informel)의 등장으로 기존질서에 대한 격렬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앙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는 외견상 매우 유사한 미술사조(思潮)이다. 두 사조는 동일한 시기에 탄생하였으며 두 사조의 작품들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형식에 유사성을 보일뿐만 아니라 이성적 사고로부터의 거부라는 사상적 배경역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접해온 북미계 대부분의 미술이론서적에서는 현대미술에 있어서 추상표현주의를 매우 중요한 사조로 다루고 있으나 앙포르멜 또는 이와 관련된 인물 및 작품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국내 미술계에서는 추상표현주의와 앙포르멜 각각의 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적이나 작가, 비평가들에 따라 이들 두 사조를 구분하여 판단하기도 하고, 어느 한 사조만을 강조하기도 하며, 한 사조를 다른 한 사조의 부분적 경향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한 미술사 관련 서적에서는 제스처라는 상위 제목 하에 추상표현주의와 앙포르멜을 동등한 레벨로 설명하는 동시에 액션페인팅과 앙포르멜을 추상표현주의의 주요 개념이라 언급하여¹⁾ 논리적으로 상충된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표현주의와 앙포르멜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고, 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해 우선 추상표현주의와 앙포르멜운동이 전개된 시대적 배경과 이들 사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사조들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그 탄생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대 사조의 탄생을 주도했던 작가들 및 비평가들의 주장에 나타난 두 사조가 추구했던 바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양대 사조의 중심이 되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기법 및 추상성 등 조형적 요소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추상표현주의와 앙포르멜의 관계를 정의하고자 한다. 주요작가의 선정

1) Wetzel, C.(홍진경 역). (2006) The Art: 미술의 역사, 도서출판 예경, pp.472-473.

은 국내외 백과사전 및 미술관련 사전의 앙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 항목에서 언급 빈도가 높은 작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추상표현주의

미술사조사(美術思潮史)에서 추상표현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용도로 등장한다. 구상표현주의에 대비되는 표현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난 추상미술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추상표현주의의 의미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뉴욕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추상미술 작가들의 경향을 의미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추상표현주의는 뉴욕 화가들의 경향을 의미한다.

2. 추상표현주의와 앙포르멜의 탄생배경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전쟁은 유럽과 북미대륙의 정치적 역학구조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학구조도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20세기 초반 유럽에서는 예술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파리에서는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와 피카소(Pablo Ruiz Picasso)에 의해 입체주의(Cubism) 운동이 시작되었고, 네덜란드의 몬드리안(Piet Mondrian)은 입체주의의 철저한 추구를 통해 신조형주의(Neo-Plasticism)를 주창²⁾하였다. 몬드리안이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드 스틸(De Stijl) 운동을 전개하던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태리 태생의 시인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에 의해 초현실주의(Surrealism)가 시작되었다.⁴⁾

이시기 미국에서는 미국미술의 정체성(identity)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왔다. 세계각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미국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문화를 융화시키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이는 자칫 정체성의 혼란과도 연결되는 문제였다. 미국의 미술가들은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렇게 융화된 문화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19세기의 미국의 화가들은 축복받은 자연의 위대

2) 이지은. (2008)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큐비즘 적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p.7.

3) 김형진. (2006) 자연과학을 본질로 하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공간에 관한 연구 : 자연현상에 의한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pp.36-37.

4) 강혜련. (2006) 초현실주의 회화의 상징성을 근거로 한 본인 작품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p.13.

함을 담은 풍경화를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담으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초 마천루의 스카이라인 등과 같은 산업사회의 풍경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조의 변화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하나였다.⁵⁾ 이러한 노력은 유럽의 변방 정도에 불과했던 당시의 미국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예술계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 직전 미국의 미술가들은 멕시코와 유럽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인들에게 추상표현주의의 영웅으로 간주되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이 1944년 “I accept the fact that the important painting of the last hundred years was done in France.”⁶⁾라고 자인한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구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전후 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이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에는 1924년 최초로 초현실주의를 선언한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을 비롯하여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앙드레 마송(André Masson) 등 전쟁 직전의 가장 중요한 미술운동의 하나였던 초현실주의(Surrealism)를 주도했던 수많은 유력한 거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⁷⁾

거장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함으로써 뉴욕의 미술계는 활기가 넘친 반면, 유럽은 주목받는 예술가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2.1. 전후 유럽과 북미 예술가들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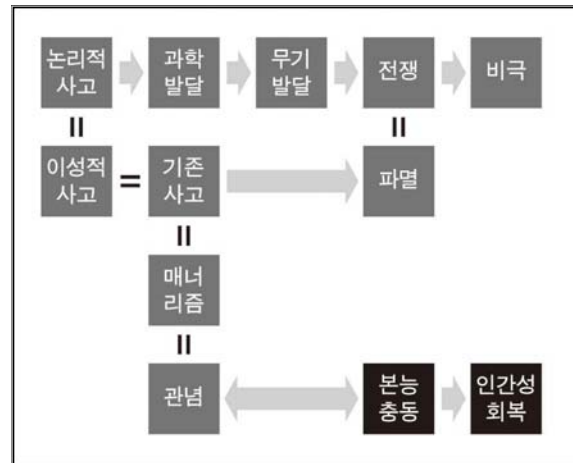
유럽의 젊은 예술가와 미국의 예술가들은 1940년대와 50년대 초 초현실주의자들의 이론화된 매너리즘과 결별하였고 아트위크에서 모든 관념을 포기하였다.⁸⁾

5) 신채기. (2004)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미국 미술에 나타난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pp.32-38.

6) Pollock, J. (1944) Arts and Architecture, LXI ; reprinted in Theories of Modern Art : A Source Book by Artists and Critics, H. B. Chipp, 1984, p.546.

7) Lucie-Smith, E. (1998) Movements in Art Since 1945 : Issues and Concepts (World of Art), Thames and Hudson Ltd., New York, p.25.

8) Spector, B. (1989) “A Profusion of Substance,” Artforum. ; reprinted in Theories of Contemporary Art(Second edition), Ed. R. Hertz,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1993, p.233.



[그림 1]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미국 예술가의 가치관 변화

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는 과학의 발달이 만들어낸 무기에 의해 자멸해가는 참담함을 경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15년간 널리 퍼진 회화는 이러한 역사적 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 속에서 나타났다.⁹⁾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이 만들어낸 무기에 의해 자멸해가는 인간의 참담함을 경험하면서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 논리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오히려 본능과 충동의 표현을 갈구하게 됨¹⁰⁾으로써 북미에서는 추상표현주의, 유럽에서는 앵포르멜이라 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표 1]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탄생

앵포르멜 art Informel	추상표현주의 Abstract Expressionism
1952년 처음 사용	1940년 처음 사용
in(not) + formel(형태/형식) = 전통적인 형태나 형식의 부정을 의미	일반적으로 1940년대 ~ 1950년대 미국의 추상회화를 의미
비정형미술(非定形美術) 비평가 마살 타피에(M. Tapie)가 처음 사용한 용어	1919년 구상적 표현주의에 대비되는 의미로 처음 사용 1929년 칸딘스키의 초기 유동적 추상회화에 대해 사용
뒤뷔페(Dubuffet), 포트리에(Fautrier), 볼스(Wols) 등의 작품에 처음 사용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데 쿠닝(de Kooning) 등의 작품에 처음 사용

2.2. 추상표현주의의 탄생

추상표현주의는 일반적으로 1940년대부터 1950년대 미국 추상회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추상표현주의란 용어는 1919년 독일의 표현주의 잡지 ‘슈트름’에서 처음

9) Janson, H.W. (1995) History of Art (Fifth edition), Prentice Hall, Inc., and Harry N. Abrams, INC., p.794.

10) 김현화. (1999) 20세기 미술사; 추상미술의 창조와 발전, 한길아트, p.199.

으로 사용했는데, 이 잡지에서 O. 헤르초크는 구상적 표현주의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했다.¹¹⁾

미국에서는 1929년 칸딘스키의 초기 유동적 추상 회화에 대해 사용하였다. 그 뒤 1940년대에 미술평론가 R. 코츠가 잭슨 폴록, 데 쿠닝(Williem de Kooning)을 비롯한 미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되었다.¹²⁾

2.3. 앵포르멜의 탄생

아르 앵포르멜(Art Informel)은 한국어로는 비정형 미술(非定形美術)로 해석된다. Informel은 형태나 형식을 의미하는 formel에 not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 in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로 전통적인 형태나 형식의 부정을 의미한다. 앵포르멜이란 명칭은 1952년 개최된 ‘앵포르멜이 의미하는 것(Significants de l'Informel)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¹³⁾ 타피에는 소책자 ‘또다른 예술(un art autre)’을 발간 뒤뷔페(Dubuffet), 포트리에(Fautrier), 볼스(Wols) 등이 보여주는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앵포르멜이라 했다.¹⁴⁾

3.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이념

추상표현주의는 종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에서 사는 예술가들에 의해 시작된 미술운동에 적용된다. 실존주의철학의 영향 속에서 최초의 추상표현주의자들인 액션페인터들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개발했다.¹⁵⁾ 근대 이전의 미술은 자연의 대상을 화폭에 담기 위해 Illusionism연구에 정열을 쏟아왔다. 이러한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도 계속되었다. 물론 몬드리안 등의 기하학적 추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작품들 역시 자연에 대한 분석을 통한 표상으로, 자연의 환영을 담는다는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반면, 초현실주의는 합리주의와 자연주의에 반대하고 잠재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1. 추상표현주의의 이념

뉴욕의 화가들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온 자연의 환영을 담은 전통과 그 어떠한 지적 사고에서도 벗어나,

화가 자신의 내면에서 발산되는 본능과 충동을 통한 표현에 몰두하였다. 추상표현주의는 초현실주의가 추구한 잠재의식의 탐구라는 모토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잠재의식 그 자체에 가치를 두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쟁을 전후(前後)해 뉴욕으로 대거 이주해온 유럽의 미술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¹⁶⁾ 전쟁기간동안 이루어진 유럽 미술가들의 대대적인 미국행으로 뉴욕의 미술가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표 2]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이념 형성 과정

앵포르멜 art Informel	추상표현주의 Abstract Expressionism
엄격한 질서체계로 위장된 정치/과학의 발달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인식	
↓ 전쟁을 일으킨 기존 가치관을 대체할 조형성을 탐구 ↓ 기하학적 추상은 논리적, 이성적 사고와 철학적 사유를 중시 ↓ 전통적인 법칙을 탈피, 새로운 질서를 구축 ↓ 본능과 충동에 의한 잠재의식 표현	↓ 자연의 환영을 담은 전통과, 지적 사고로부터 탈피 ↓ 초현실주의 내면에서 발산되는 본능과 충동을 통한 표현 ↓ ↓ 잠재의식에 대한 탐구 잠재의식 자체에 가치를 둠

3.2. 앵포르멜의 이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젊은 화가들은 전쟁을 일으킨 기존의 가치관을 대체할 만한 혁신적인 조형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¹⁷⁾

20세기 초 유럽 화단은 논리적, 이성적 사고와 철학적 사유를 중시하는 기하학적 추상을 통해 자연에 대한 Illusionism으로 부터 탈피하는데 성공하였다. 차가운 추상이라고도 불리어지는 기하학적 추상은 유토 피아니즘의 이상과 엄격한 규칙과 규범에 의한 질서체계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부응했다.¹⁸⁾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유럽인들 사이에서 엄격한 이성적 사고와 질서체계에 기반을 둔 정치와 과학의 발달이 인류의 파멸을 이끌었다는 생각이 파급되고, 기존가치의 원천적 개혁을 요구했다. 앵포르멜은 전통

11)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7576&cid=40942&categoryId=33048>
 12) Ibid.
 13) 세계미술용어사전, (주)월간미술, 2002, p.314.
 14) 세계현대미술사전, 도서출판 지평, 2007, p.33.
 15) Spector, B. (1989) "A Profusion of Substance," Artforum. ; reprinted in Theories of Contemporary Art (Second edition), Ed. R. Hertz,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1993. p.233.

16) Rose, B. (1980) "American Painting: The Eighties," catalogue essay, Grey Art Gallety ; reprinted in Theories of Contemporary Art(Second edition), Ed. R. Hertz,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1993. p.29.
 17) 김현화. (1999) 20세기 미술사; 추상미술의 창조와 발전, 한길아트, p.283.
 18) Ibid.

적인 법칙을 탈피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미술운동으로 활기찬 탐구를 전개했다.

4.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작품 경향

추상표현주의나 앵포르멜 작품들은 추상적 표현과 구상적 표현을 넘나들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표상의 사실적 표현정도를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4.1. 추상표현주의 작품경향

추상표현주의는 무의식을 강조해 자동기술법(Automatisme)을 적용함으로써 구상회화나 기하학적 추상이 갖는 형상성(形象性)을 초월하고자 하였다. 추상표현주의는 흔히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과 색면회화(Color-Field Abstract)로 분류하는데, 액션페인팅은 1952년 로젠버그(Harold Rosenberg)가, 색면회화는 1955년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가 명명한 개념이다.



[그림 2] Arshile Gorky(Action Painting)



[그림 3] Jackson Pollock(Action Painting)



[그림 4] Williem de Kooning(Action Painting)

미술비평가 로젠버그는 잭슨 폴록이나 드쿠닝(Williem de Kooning), 고르키(Arshile Gorky) 등이 신체 움직임으로 작가의 성격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조형성을 탐구하는 것을 액션페인팅이라 하였다. 잭슨 폴록은 자동기술법을 강조하여 드립페인팅(drip painting)을 개발해 완성된 그림보다는 제작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¹⁹⁾ 즉, 작품은 캔버스위에서 행해지는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에 의해 화가의 삶의 일부를 기록한 것이라 보았다.²⁰⁾



[그림 5] Barnett Newman (Color-Field Abstract)



[그림 6] Clyfford Still (Color-Field Abstract)

색면회화는 색으로 채워진 거대한 면을 통해 형이상학(metaphysics)적인 지적 성찰을 유도한다. 뉴먼(Barnett Newman), 로스코(Mark Rothko), 스틸(Clyfford Still) 등은 아무 대상도 그리지 않고 단지 캔버스 위에 색만 칠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거대한 캔버스가 표출하는 색채 속에서 감정의 교류와 명상을 요구했다.

19) Pollock, Jackson. "My painting," Possibilities I, New York, Winter 1947/48, p.79 narration by the artist for the film "Jackson Pollock," 1951, by Hans Namuth and Paul Falkenberg ; Excerpted in Theories of Modern Art(Second edition), Ed. Richard Hertz,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1993. pp.546-547.

20) 이영. (2007) 미술비평을 적용한 고등학교 추상회화 감상지도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그림 7] Mark Rothko (Color-Field Abstract)

4.2. 앵포르멜 작품경향

앵포르멜의 작품경향은 타시슴(Tachism), 서정적 추상(Abstraction lyrique), 마티에르 등으로 대변된다.

서정적 추상은 뜨거운 추상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전쟁 이전 자연에 대한 이성적 분석과 극도의 절제를 통해 표현되던 기하학적 추상에 대비되는 용어다.



[그림 8] Jean Fautrier(Informel)



[그림 9] Jean Dubuffet(Informel)



[그림 10] Karel Appel(Informel)

뒤뷔페를 비롯한 코브라(Cobra) 그룹작가들과 알레친스키(Pierre Alrchinsky) 등은 거친 재료를 통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본능을 표현하였다. 타시즘은 ‘얼룩,’ ‘자국’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앵포르멜 경향에 대한 조소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에서 나타나는 엄격한 화면 구성을 거부하고, 작가의 직관에 따른 자유분방한 붓놀림을 특징으로 하는 타시즘은 자동기술법에 의한 표현의 산물이다. 즉, 자동기술법에 의해 화면을 휩쓸듯이 그리기도 하고,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튀기거나 하면서 마치 얼룩이나 반점이 묻은 듯한 화면을 창출하였다. 마티외(Georges Mathieu) 등은 신체 제스처를 이용한 붓놀림에 몰두하였다. 이들 작가들은 모두 풍요로운 정신적 자유와 본능에 의한 무정형의 형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자 하였다.

앵포르멜 작가들은 모래나 점토 등 오브제를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전쟁을 통해 인간의 이성, 역사의 발전, 신의 권능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실존주의의 표출이다. 즉, 자연 그대로의 마티에르를 보여줌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순수성의 고귀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5. 종합토론

유럽과 미국의 예술가들에 의해 나타난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선 유사점을 언급하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비극을 이성적 사고가 불러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가공되지 않은 감성이나 본능에 의한 표현을 추구하였다. 또한, 표현 양식에 있어서 추상과 구상의 형식을 모두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구상의 양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표현은 단순히 자연의 표상이라 하기 보다는 감성이나 본능의 표출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차이점으로는 탄생과정과 표현 기법상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추상표현주의는 기존 미술사조로부터 계승 발전된 사조인 반면 앵포르멜은 기존 사조에 대한 반발로 출

발한 사조라는 점이다. 즉, 추상표현주의는 전쟁 전 유럽 미술계를 주도했던 큐비즘, 초현실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사조인 반면, 앵포르멜은 기하학적 추상이나 큐비즘 등의 기존 사조에 대한 반발에 의해 탄생한 사조라 하겠다.

표현상의 차이로는 추상표현주의가 액션페인팅과 색면회화를 특징적 성향이라 본다면, 앵포르멜은 타시즘과 마티에르를 특징적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타시즘과 액션페인팅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각 영역의 특징적 요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왔을 뿐, 동일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표 3]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의 작품의 특성

앵포르멜 art Informel	추상표현주의 Abstract Expressionism
추상적 표현과 구상적 표현을 공유	추상적 표현과 구상적 표현을 공유
타시즘 (Tachism) 신체 제스처를 이용한 붓놀림의 결과 ↓ 자동기술법	액션페인팅 (Action Painting) 신체 움직임을 통한 조형성 탐구 ↓ 자동기술법
서정적 추상 = 뜨거운 추상 기하학적추상(차가운 추상)에 대한 반발	
마티에르 가공되지 않은 순수성의 고귀함	색면회화 (Color-Field Abstract) 색으로 채워진 거대한 면을 통해 관람자의 형이상학 (metaphysics)적 성찰 유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추상표현주의나 앵포르멜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양대 사조 자체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관과, 작품상에 나타는 기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성과정은 차이를 보이며, 작품의 결과물 상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미술 사조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각 사조가 추구했던 이념과 기법, 시대, 환경 및 상호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은 지역적 환경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사조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사조의 출발이 서로 다른 관점에 기반을 두어 이루진 점을 감안한다면 동일한 사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조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두 사조가 각각의 지역뿐만 아니라 제3의 지역 미술계에도 큰 영향을 주어왔다는 점이다. 즉, 앵포르멜이 유럽지역에서만, 추상표현주의가 미국에서만 한때 영향력을 과시했던 사조라면 두 사조를 별개의 사조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조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수용되어, 지역적 영향이 가미되되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서 수용한 사조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즉, 탄생과정상에서만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양대 사조의 탄생과정을 함께하지 않고, 이미 형성된 가치관과 기법을 수용해서 나타난 성향을 추상표현주의 또는 앵포르멜이라 구분하여 말할 수는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사조의 구분에 지역성과 탄생과정을 감안할 경우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은 다른 사조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미 형성과정을 함께하지 않고 사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법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이 추구한 가치와 기법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어느 한쪽의 영향만을 받아 수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는 곧, 양대 사조의 형성기를 함께하지 않은 지역에서 형성된 성향은 추상표현주의나 앵포르멜 중 어느 한쪽의 사조로 특징지어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은 지역적 특성과 미묘한 표현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양대 사조가 추구한 가치관을 받아들여 형성된 제3지역의 사조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강혜련, 초현실주의 회화의 상징성을 근거로 한 본인 작품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6.
- 김현화, 20세기 미술사: 추상미술의 창조와 발전, 한길아트, 1999.
- 김형진, 자연과학을 본질로 하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공간에 관한 연구 : 자연현상에 의한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2006.
- 신채기,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미국 미술에 나타난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4.

- 이영, 미술비평을 적용한 고등학교 추상회화 감상지도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7.
- 이지은,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큐비즘 적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8.
- Wetzal, C.(홍진경 역), The Art: 미술의 역사, 도서출판 예경, 2006.
- Chipp, H. B., Theories of Modern Art; A Source Book by Artists and Critics, 1984.
- Hertz, R. Theories of Modern Art(Second edition),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1993.
- Hertz, R., Theories of Contemporary Art,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1993.
- Janson, H.W., History of Art (Fifth edition), Prentice Hall, Inc., and Harry N. Abrams, INC., 1995.
- Lucie-Smith, E., Movements in Art Since 1945: Issues and Concepts (World of Art), Thames and Hudson Ltd., New York, 1998.
- Pollock, J. Arts and Architecture, LXI, 1944.
- Pollock, Jackson. "My painting," Possibilities I, New York, Winter 1947/48, p.79
- Rose, B. "American Painting: The Eighties," catalogue essay, Grey Art Gallery, 1980.
- Spector, B. "A Profusion of Substance," Artforum (Oct, 1989).
- 네이버지식백과 <http://100.naver.com/>
-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1993.
- 세계미술용어사전, (주)월간미술, 2002.
- 세계현대미술사전, 도서출판 지편, 2007.